

북구, 통계업무 진흥 유공 경제부총리상

전국 단위 대규모 통계조사 성공 추진 공로 인정

북구가 광주에서 유일하게 통계청이 주관한 '2023년 통계업무 진흥 유공 포상'에서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통계업무 진흥 유공 포상은 전국 단위 대규모 통계조사를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관을 발굴해 그 공적을 기리고 확산하고자 마련됐으며 올해는 총 25개 지자체를 유공 기관으로 선정해 기관별 국가통계 발전에 대한 노력에 따라 경제부총리상, 통계청장상 등 훈계를 달리해 포상했다.

북구는 이번 통계업무 포상에서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세부 조사계획 수립 ▲충분한 조사인력 채용 ▲다양한 홍보활동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유도했고 정확한 조사인력과 내검업무 수행으로 통계수치의 신뢰성을 제고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북구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통계업무 진흥 유공 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제부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형안 기자

‘광산형 사례관리’ 업무 공유회 개최

148개 기관 협력 522개 위기가정 자립 지원

“어떤 말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께 편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돕는 민·관 협력체계 ‘광산구 휴먼서비스네트워크’의 지원으로 폭력, 학대에서 벗어난 이주여성 A씨가 보내온 편지다.

광산구는 24일 월봉서원에서 ‘광산형 사례관리 휴먼서비스네트워크’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업무 공유회를 개최했다.

복지·보건·의료·교육주거 등 11개 분야 148개 기관이 참여한 광산구 ‘휴먼서비스네트워크’는 민·관 협력을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신속한 위기 탈출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522가구의 위기가정을 발굴, 4252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뒷받침했다.

A씨 역시 ‘휴먼서비스네트워크’에 참여한 지역 여러 기관·단체의 도움으로 일상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A씨의 세 자녀는 희귀 난치 질환, 늦은 언어 발달 등이 있어 꾸준한 치료와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A씨가 식당에서 일하다 큰 사고를 당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됐고, 남편의 자녀 학대와 폭력이 이어지면서 집안에는 웃음이 사라지게 됐다.

광산구는 상담, 육구 조사와 위기도 조사 등을 통해 A씨 가정의 문제를 파악,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로 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민간 자원을 연결했다.

기업, 의료·교육기관, 봉사·사회단체 등 힘을 보태 주거환경 개선, 주거지 이전을 비롯해 A씨와 세 자녀의 치료,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했다.

정기 방문, 가사 지원 등 광산구 통합돌봄서비스와 더불어 자녀들이 원하는 꿈을 찾고 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도 제공했다.

광산구는 A씨 사례를 비롯한 올해 복지 현장을 기록한 열한 번째 사례집 ‘Do dream(두드림)’을 제작했다.

／이동기 기자

서구, 팀장급 공무원 자치분권 역량강화

지방자치분권 이해·생활정부 실현 공감대 형성 교육

서구는 팀장급 공무원 17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24일 까지 3차례에 걸쳐 시·군·구·읍·면·동에서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에 따른 정책상황 이해 및 마을중심 자치도시·생활정부 실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공직자의 역량강화와 역할 재정립을 통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생활정부, 자치분권, 마을자치 3개 분야 교육으로 나눠 실시했다.

13일 생활정부 분야 교육은 로컬연구소 Local Lab 대표 유창복 교수가 ‘민주주의와 생활정부’라는 주제로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방

식과 자치 ▲공공성 주도의 역사 및 마을중심 ▲동 단위의 자치와 사회연대정제를 통한 생활정부의 실현 등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이어 17일 자치분권 분야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황한식 교수가 ‘지방자치분권-지역혁신균형발전 실천전략과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24일 마을자치 분야는 안산시 마을지원센터 이필구 센터장이 ‘자치와 협치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조선주 기자

보성서 지속 가능한 산림 순환경영 현장 토론회

전남도는 현장 중심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지난 24일 보성을 봉산리의 선도산림경영단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 토론회가 열린 보성 선도산림경영단지는 2013년 산림청 공모에 선정돼 올해까지 총 150억 원이 투입됐다.

임도 56km, 편백 등 인공림 조성 414ha, 숲 가꾸기 2042ha 등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이 구축됐다.

이번 토론회는 산림순환경영의 기술적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22개 시·군 담당자와 산림사업법인 및 관계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조림 및 숲가꾸기와 친환경 벌채 실무 기술교육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사항과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잘 조성된 편백림의 목재 생산 가능 증진을 위한 가지치기와 불량목 제거 등 기술적 산림경영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참가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전남도는 올해 총 3회에 걸쳐 숲가꾸기 현장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산림사업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토론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은 현장 작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조순의 기자

브로커 인사 비위 연루 전남경찰 5명 직위해제

전 경감 이모씨에 승진 인사 청탁 명목 뇌물 건넨 혐의…검찰 입건

사건 브로커의 승진 청탁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입건된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5명이 직위 해제됐다.

전남경찰청은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경찰관 5명(경정 2명·경감 3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직위 해제된 경찰관 5명은 전남청 안보수사, 목포서 정보과·일선 파출소, 해남서 경무과, 진도서 생활안전

과 소속이다.

경찰관 5명은 퇴직 경감 1명과 함께 지난 23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 수사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로커 성모(61)씨의 인사 청탁 비위를 보강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점을 포착,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구속기소된 전남청 전 경감 이모씨에게 승진 인사 청탁 명목

의 뇌물을 건네고 지난 2021년 승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받은 뇌물을 당시 김재규 전남청장에게 건네 청탁한 혐의(제삼자 뇌물취득)로 구속돼 지난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찰 고위직과 친한 브로커 성씨에게 “(뇌물을 준 동료들의) 승진 인사에 힘써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에 연루된 김 전 전남청장은

／뉴스1

전남도, 감사원 자체감사 콘테스트 2년 연속 ‘대상’

‘해양폐기물 처리·관리실태’ 특정감사 최우수 선정

전남도가 감사원이 주관한 자체감사 사항 콘테스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올해 추진한 ‘해양폐기물 처리·관리실태’ 특정감사가 24일 감사원의 ‘2023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전국 최우수 자체감사로 선정돼 대상과 함께 우수 직원

개인 표창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빈집정비·활용실태’ 성과감사로 ‘대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예비심사, 전문가심사, 발표심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남도의 특정감사를 올해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양폐기물 처리·관리실태’ 특

정감사 대상 수상은 전남도가 13명의 감사 인원을 6개월간 현장에 투입해 해양폐기물 실태를 확인하면서 지역 현안으로 대두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다.

폐각, 평생이모자반 등 해양폐기물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을 전환 시키고, 활용·개선 방안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김 호 기자

광주 희망티움 통합지원단 ‘안전 콘퍼런스’ 개최

추진사업·지원사례 등 공유…사회적 약자 지원역량 결집

광주자치경찰위원회·광주경찰청 등 63개 기관·단체 참여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시경찰청 등 63개 기관·단체들로 구성된 ‘희망티움 통합지원단’은 24일 광주시경찰청 빛고을홀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 사례 등을 공유하는 ‘제1회 더 좋은 광주다움 안전 콘퍼런스’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 내 사회적 약자의 행복과 성

장을 고민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기조강연, 광주경찰청과 굿네이버스 광주 전남본부의 경과 및 사업보고, 통합지원단 참여기관·단체들의 지원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추진한 사업

소개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많은 기관·단체들이 사회적 약자를 도울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희망티움 통합지원단’은 범죄 관련 사례회의를 개최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미리 확보한 기금 등 자원으로 대상자를 지원하는 단체이다. 사례관리, 상담·지원, 나눔, 희망 등 4개 분과활동을 통해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기금활용을 통한 생필품·주거 등 경제적 지원, 학업·취업 등 일상복귀 지원 등 통합 지원망을 구축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축하영상을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손잡고, 굿네이버스 등 민간단체와 기업 63곳이 참여해 ‘희망티움 통합지원단’을 구축한 것은 크게 박수받을 일”이라며 “확장된 통합지원단의 규모만큼 광주의 복지사각지대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조일상 기자

동구, 인천 월드헬스시티포럼서 ‘건강도시’ 세션 성료

국내외 석학 한자리에…‘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주제 포럼



동구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F) 제9대 의장 도시로서 지난 20~2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WHCF:World Health City Forum)’에서 ‘건강도시’ 세션(특별 회의)을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은 전 세계가 기후 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고 회복을 주도할 더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 도시 구현을 위한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추진됐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20여 개국과 세계보건기구 등 국내외 150여 명의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험의 세

들 것인가’를 주제로 기후·환경·도시·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심도 있는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 광주 동구가 제9대 의장 도시로 있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지속 가능한 건강 도시:모든 정책이 건강’을 주제로 한 세션을 진행했다. 국내 연사로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부(WHO WPRO) 건강증진국장을 역임한 신혜림 박사가, 국외 연사로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게이코 나카무라 교수와 세계보건기구 나탈리 로벨 박사가 참여해 전문적인 관점과 의견을 포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또한 포럼 기간 중, 지난 7월 진행

한 호남·충청·제주권역 실무자 역량 강화교육에 이어 수도권·경상권 회원 도시를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교육 및 컨설팅 등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도시의 미래:팬데믹의 교훈’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 임택 동구청장(제9대 KHCF 의장)이 패널로 참석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수행할 역할에 대한 토론을 이끌었고 회원 도시들도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흘간 진행된 포럼 폐막식에는 임택 동구청장이 스마트하고 회복력 있는 건강도시를 위한 5가지 원칙을 천명한 ‘인천 선언(Incheon Declaration)’ 공식 발표 무대에 서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대외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규모이자 최초로 국내에서 열린 이번 월드헬스시티포럼에 대한 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함께 참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내외 저명한 석학이 참석했던 이번 포럼을 통해 협의회 역시 한 단계 성장하고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지난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성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 5명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성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승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고가의 승용차와 17억 4200만 원을 받아 쟁권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광주시, 기술직공무원
건설기술인 직무교육 실시



광주시는 지난 24일 기술직공무원과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광주시, 자치구 기술직공무원을 비롯해 공사공단 직원 40여명이 참여해 해남 화원~신안 압해 국도 77호선 건설공사 현장의 터널과 교량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현장 견학은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현장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을 살펴봤다. 이번 견학은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의 협조를 받아 도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해상교량 등 대형기반 시설 공사현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됐다.

광주시는 앞서 22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시와 자치구 기술직공무원, 공사·공단 임직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소속 광주·전남지역 건설기술인 등 27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기술직공무원 및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직무교육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국도안전관리원 최재원) ▲BIM의 이해와 활용(㈜한국BIM조합 전진우) ▲K-모듈러 공법의 성공사례와 발전과제(현대엔지니어링 김경수)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또 국토안전관리원 주관 ‘스마트 안전장비 홍보관’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주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1대 1 컨설팅’을 운영했다.

시교육청, 지역 대학생 협력
맞춤형 학습·학교 현장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3~11월 약 7개월 간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시행한 대학생 보조강사제의 올해 운영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시작된 대학생 보조강사제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이다. 올해는 기존 참여했던 광주교육대, 조선대 학생은 물론 전남대 학생들도 참여해 규모가 확대됐던 첫해였다. 지금까지 보조강사를 요구하는 학교에 비해 지원자가 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시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대학교에 파견된 교육협력관 등을 활용해 사범대학 실무자와 대학생 보조강사제 확대를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대학생 보조강사를 여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도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과정이 진행됐다.

여기에 더해 대학생들의 보조강사로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난 3월과 8월 부진 학생에 대한 이해 및 학생과 관계 맺기, 학습지도의 실제 등의 연수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했다.